내 삶을 지키는 정부 국민안전 플러스

농촌진흥청 | 보도자료 | 대체불가 대한민국

보도 시점 배포 즉시 배포 2026. 11. 25.(수)

겨울철 시설 수박, 해충 예방·생육 관리 철저 당부

- 진딧물·담배가루이·총채벌레 등 바이러스 매개 해충 발생 수시 점검
- 건전 모종 사용, 작물 잔재물·잡초 제거로 초기 감염 차단
- 적정 온도 유지와 수정벌 보호로 안정적인 생산 뒷받침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겨울철 시설 수박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주요 해충의 발생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바이러스 감염 예방과 생육 관리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총채벌레 피해를 본 수박 열매>

겨울철에는 외부 기온이 낮더라도 시설 내부에서 진딧물, 담배가루이, 총채벌레, 응애류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들 해충은 잎과 생장점 등에 해를 가해 생육을 떨어뜨리고, 바이러스병을 옮기기도 한다.

해충과 바이러스 피해를 줄이려면 아주심기 전부터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수박을 연속*해서 재배하는 농가는 이전 작기 작물 수확 후 감염 식물체와 잔재물, 주변 잡초를 제거한다. 다음 작기 아주심기 전에는 시설 안에 남아 있는 해충을 집중적으로 방제한다. 또한,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건전한 모종을 심어 초기 감염을 예방한다.

* 겨울 수박 주산지인 경남 함안 지역 등에서는 12월경 수박을 수확한 뒤 곧바로 다시 수박을 심어 이듬해 3월 말경 수확함(2기작)

아주심기 후에는 끈끈이 덫(트랩) 설치와 식물체 관찰을 병행해 해충 발생을 일찍 확인한다. 해충이 발생했다면, 수박에 등록된 약제로 신속하게 방제한다.

진딧물은 수박모자이크바이러스(WMV)와 주키니황화모자이크바이러스(ZYMV), 담배가루이는 박과퇴록황화바이러스(CCYV)를 옮길 수 있다.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잎이 누렇게 변하거나, 모자이크 무늬가 나타나고, 생육이 떨어진다. 이러한 증상이 의심되면 곧바로 전문 기관에 진단을 의뢰한다.

감염이 확인된 식물체는 신속히 제거한 뒤, 밀봉해 시설 밖으로 반출· 폐기한다. 아울러 주변 식물체를 예방 관찰하고, 매개충 방제에 힘써 바이러스 확산을 최소화해야 한다.

해충을 방제할 때는 수정용 벌 보호에도 각별하게 주의한다. 약제 살포 전에는 수정벌에 대한 독성과 사용상 주의 사항을 확인하고, 필요시 벌통을 안전한 장소로 옮기는 등 보호 조치한다. 약제 살포 후에는 약제별 수정벌 재투입 가능 시기를 지켜 벌 피해를 예방한다.

겨울철 온도 관리도 중요하다. 밤에는 비닐 등으로 터널을 덮어 저온 피해를 예방하고, 낮에는 햇빛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보온 자재를 걷어준다. 이때 시설 내부 온도와 습도가 지나치게 높아지지 않도록 적절히 환기한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채소기초기반과 장윤아 과장은 “겨울철 시설 수박은 해충 관리와 적절한 재배 환경 유지가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원예특작환경과 이세원 과장은 “아주심기 초기부터 해충 유입을 차단하고 지속적인 예찰과 초기 방제를 실천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붙임. 수박의 주요 피해 증상

<table>
<tr><td rowspan="2">담당 부서
<총괄></td><td rowspan="2">국립원예특작과학원
원예특작환경과</td><td>책임자</td><td>과 장 이세원 (063-238-6300)</td></tr>
<tr><td>담당자</td><td>연구사 서미혜 (063-238-6332)</td></tr>
<tr><td rowspan="3"><공동></td><td rowspan="2">국립원예특작과학원
채소기초기반과</td><td>책임자</td><td>과 장 장윤아 (063-238-6600)</td></tr>
<tr><td>담당자</td><td>연구사 이옥진 (063-238-6642)</td></tr>
<tr><td colspan="3">농촌진흥청에서 연구·개발한 농업의 모든 것 농사로</td></tr>
</table>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체불가 대한민국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붙임 # 수박의 주요 피해 증상




수박 진딧물 피해 잎




총채벌레 피해 잎과 열매



담배가루이 피해 열매



점박이응애 피해 잎